

무주 금강변 마실길 가을 정취 만끽

전북 삼천리길 페스티벌 in 무주 아름다운 금강변 마실길 걷기 행사 성료

‘2025 전북 삼천리길 페스티벌 in 무주 아름다운 금강변 마실길 걷기 행사’가 1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무주관광관광협회,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삼천리길의 핵심 구간인 ‘무주 금강변 마실길’을 걸으며 아름답고 깨끗한 무주의 자연환경을 알리고 군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학생과 주민 등 무주군민, 그리고 관광객 등 25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무주군 부남면 잡두강변 길에 집결해 요대마을, 안요대마을을 거쳐 무주를 서면마을 소이나무 공원까지 7.4km를 함께 걸으며 금강변 산야에 깃든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주민 한모씨(58, 무주읍)는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막 가을이 물들기 시



‘2025 전북 삼천리길 페스티벌 in 무주 아름다운 금강변 마실길 걷기 행사’가 1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작한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무주에 살면서도 금강변 마실길에 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길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 삼천리길’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걷기길, 자전거길, 황토길 등을 연결·정비해 놓은 1,037km 구간으로 무주군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역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코스를 포함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주택화재 현장 방문

피해 주민 위로·조속한 일상 회복·복구 대책 마련 지시

장수군은 지난 10일 발생한 주택화재 피해 현장을 최훈식 군수가 직접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회복과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변안면 소재 한 주택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장수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최훈식 군수는 화재 현장에서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속한 사고 수습과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 복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장수군은 즉시 임시 식량과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 규모를 면밀히 확인해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다”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과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재개

무주군이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무풍면과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작은 목욕탕의 운영을 재개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중목욕탕이 없는 면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5개 면 지역 행정복지센터 내에 목욕탕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7~8월(여름철 정기 휴무)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남녀 요일 지정

제로 운영(09:00~17:00)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각 지역 작은 목욕탕들은 휴무 기간에 보일러 이상 유무와 수도 등 시설점검을 마치고 문을 열었으며 적상면 단종골 작은 목욕탕은 9월까지 시설을 보강하고 10월 운영을 재개했다. 적상면은 목욕탕 탈의실과 휴게실의 전기패널을 교체하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보강했으며 급수 및 배관 정비, 바닥 누수공사 등도



마무리했다. 주민들은 “우선 가깝고 일반군민은 2천 원, 65세 이상은 1천5백 원, 70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우대 군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끼리 회포도 푸는 사람방 역할도 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 최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진안군, 시술비 생애 1회 본인부담금 50% 최대 200만원

진안군은 7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임신 시기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난자동결은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고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시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경우이다. 단, 20세 이상 29세 이하 여성은 조기폐경 가능성(AMH 1.5ng/ml)이 있는 경우엔 지원가능하며,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AMH 수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시술비는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병실임료 및 보관료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을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안군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진안군은 냉동난자 사용하여 향후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해 회당 최대 100만원씩 두 차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63-430-8539, 8513)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는 16일 진안군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제42기 진안군 노인대학 졸업식을 학생, 내빈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제42기 진안군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회장 구동수)는 16일 진안군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제42기 진안군 노인대학 졸업식을 학생, 내빈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노인대학생 70명을 비롯해 정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전현준 대학장, 읍·면 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수여 및 졸업식사, 축하, 격려사 순으로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2026년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진안군은 지난해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했으나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올해 다시 도전한 끝에 2026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약 2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간판개선사업에 착수할 예정이 다. 사업 대상지는 진안을 중심상가 일원으로, 진안을 쌍다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이다. 해당 구간은 읍에서 이동 인구가 많은 구간으로 이번 사업으로 노후화·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 철거되고 군대표 컬러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 등이 어우러진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면 군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상전면 용담댐 수물민 위로 방향제 개최

진안군 상전면(면장 김명기)은 16일 상전면 방향의 광장에서 2025년 상전면 방향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상전면 이장협의회(회장 안상용)가 주관했으며 관의 향우회와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용담댐 수물로 고향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전면은 2001년 용담댐 건설로 6개리 20여개 마을 1000여 세대가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를 기념하고 실향민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방향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헌화, 분향이 진행됐으며, 상전면 출신 허호석 시인이 ‘그리운山河’라는 시를 낭송해 같은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위로를 이끌었다. 방향제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이웃과 고향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행사 참석자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고, 내년 행사를 기약하며 아쉬움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하반기 장학생 선발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을 선발한다. 2025년 하반기 장학금은 총 7개 분야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대학생 희망장학금 △특기 장학금 △예체능문화인재육성 장학금 △특성화 장학금 △대학·비전학 창업·취업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이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재단 사무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통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2년 이상 장수군에 등록된 군민 또는 그 자녀로 해당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